

[붙임 1] 면접 심사용 암기 자료

아래 제시된 면접 이야기 **3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암기 후 면접시 실제로 구연합니다.

이야기 1.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 익

이야기 2. 도둑을 혼내 준 이방실 장군

이야기 3. 주먹을 펴지 않은 선비 양충의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 익

조선 시대 때 조익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조익의 집에 조카가 찾아왔어요. 조카는 게으른 탓에 늘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조익이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돈을 버는 방법이 있긴 하지.”

“그게 무엇입니까?”

조익의 말에 조카는 귀가 솔깃했어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지? 그럼 나를 따라오게.”

조익은 조카를 데리고 마당의 우물가로 갔어요. 그리고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하하! 이거야말로 쉬운 일이지요.”

조카는 우쭐거리며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았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물을 퍼 담아도 항아리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무심코 항아리 안을 들여다본 조카는 깜짝 놀랐어요. 항아리 밑바닥이 뽕 뚫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조카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밑 빠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웁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허허, 그런가? 그럼 내일 다시 오게나.”

조카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조익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자 꺾 참고 돌아갔어요.

도둑을 혼내 준 이방실 장군

옛날 고려 시대 때 이방실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방실은 몸이 약해서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는 했어요. 이방실은 달리기를 해도 꼴찌, 씨름을 해도 꼴찌, 냇가에서 수영을 해도 꼴찌였어요.

“안 되겠어. 나도 힘을 길러야지.”

이방실은 날마다 달리기를 했어요. 냇가에 가서 돌멩이 던지는 연습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더니 어느 날 날아가는 새도 맞힐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방실은 고개를 저었어요.

“새 한 마리 맞힌 걸로는 안 돼!”

이방실은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마침내 돌멩이 하나로 날아가는 새 두 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방실은 그제야 활짝 웃었지요.

어느 날 이방실은 길에서 몸집이 큰 사내를 만났어요. 사내는 칼을 차고 등에는 커다란 활을 메고 있었어요. 이방실은 한눈에 사내가 도둑임을 알아보았어요.

“혼자서 어디를 가느냐? 심심할 텐데 내가 동무해 주지.”

도둑이 말을 걸어왔어요. 도둑은 이방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을 속셈이었어요. 이방실이 대답했어요.

“바다에 갑니다.”

“바다에는 왜 가? 나와 같이 산으로 가자.”

도둑은 이방실의 뒤를 따라왔어요. 이쪽 길로 가면 이쪽 길로, 저쪽 길로 가면 저쪽 길로, 이방실의 뒤만 졸졸 쫓아왔답니다.

주먹을 펴지 않은 선비 양충의

옛날, 조선 시대 때 양충의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양충의는 마흔 살이 될 때까지도 글을 전혀 읽을 줄 몰랐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돼.”

양충의는 높은 벼슬을 하는 할아버지만 믿고 으스댔어요.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 골치 아프게 공부는 왜 해?”

양충의는 노는 일에만 마음을 쓸 뿐, 공부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양충의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에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양충의는 화가 났어요. 마당에서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깬기 때문이에요. 마당에서는 어린 조카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이 글자는 소 ‘우(牛)’자야.”

“아니야. 낮 ‘오(午)’자야.”

조카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있었어요.

“좋아. 그렇다면 아저씨께 여쭙어 보자.”

아이들은 양충의가 있는 방문 앞으로 몰려왔어요.

‘어이구! 큰일 났네! 나는 글자라고는 하나도 모르는데!’

양충의는 얼른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아저씨! 좀 나와 보세요.”

양충의는 더 크게 코를 골았어요.

“깊게 잠드셨나 봐.”

“혹시 글자를 모르시는 게 아닐까?”

“에이, 무슨 어른이 글자도 몰라?”

“대낮에 게으르게 낮잠이나 주무시잖아.”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물러갔어요.